

집 이름 : 휴식과 회복의 집(가칭)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00-103 1층, 2층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서류 상 주민등록증/번호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1. 공동체 소개

a. 단체 이름 : 빈집

b. 홈페이지 등 : binzib.net

c. 활동소개 (자치/ 공유/ 환대 등):

i. 자치

1. 매주 1회 집 회의를 가져서 한주나눔, 안건 및 건의, 회계상황 공유를 진행하며 구성원들이 집을 꾸려갑니다.
2. 집은 과거에 지낸 사람과 현재 지내는 사람, 미래에 지낼 사람이 이룬 공간입니다. 머무는 동안 주인처럼 참여하고, 손님처럼 내어주는 마음을 가집니다.
3. 집에 머무는 사람과 새로 올 사람을 위해 집을 깨끗이 유지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살림노동을 인정하고 그 부담을 개인이 가지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하여 모두가 최대한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항상 안정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살림살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5. 집을 꾸리는 시스템 매뉴얼을 집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객이 빠르게 살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손님이 곧 주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ii. 공유

1. 집이 어떤 공간인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험하며 공유합니다.
2. 집회의 내용과 회계 상황을 빈집 홈페이지에 공유합니다.
3. 회계 장부는 구글드라이브로 빈고와 집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항상 모두가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둡니다.
4. 빈집의 가치를 집 구성원들과 항상 나누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갑니다.
5. 낮 시간에는 방문을 최대한 열어두어 집이 단절된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현관문에 비밀번호로 된 도어락을 설치하여 소담을 이용하고 싶은 이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한다.

7.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것들(ex 식료품 사용, 잠자리, 여러가지 물건들)은 공유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정기적으로 스트레칭, 불광천 산책, 차 마시기, 동물권모임,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등 여러 성향의 모임을 열어 집 공간을 지역 주민과 빈마을에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9. 비건 음식을 공유한다.
10. 잉여금의 일부를 빈고에 선물한다.
11.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빈고 가입을 장려하고 의무 출자금액을 설정하여 새로운 공유지를 만드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12. 방이 가득 차있는 상황에서는 거실에서 잘 수 있도록 하여 거실공간을 항상 비워놓는다.
13. 언제나 열린 상태면 힘들고 지칠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이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친 사람은 함께 사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배려를 얻고자 노력하며 구성원들은 귀 기울여 듣는다.
14. 교환일기나 방명록처럼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과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고양이 일지를 만들어 기록하고 빈집 웹사이트 등에 공유합니다.
16. 거실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임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게 합니다.

iii. 환대

1. 집에서의 생활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하고 새 구성원을 맞았을 때 활용하여 집의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손님이자 주인인 새로운 사람이 집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했을 때에도 맞이 할 수 있도록 환영의 글을 거실에 배치한다.
3.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책을 하며 마을을 안내하는 식의,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노력과 품을 들인다.
4. 누구든 월 1회 하루 단투에 대하여 단투비를 대신해 선물이나 활동(유익하거나, 또는 즐겁거나)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서로를 따뜻이 맞는다.

iv. 평등

1.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2. 나이와 성별, 학벌, 외모,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연령, 인종, 민족, 장애, 질병, 비인간 동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지양합니다.
3. 누군가 혐오를 담은 표현을 한다면 지적과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활동적으로 실험합니다.
4. 평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공유하는 집입니다. 텍스트를 함께 공부합니다.
5. 생각날 때 땃땃땃(불 끄고 전기 안 쓰고 환경 생각하는 시간)을 합니다.

v. 그리고

1. 식물(루꼴라 등) 묘목을 키웁니다.
2. 구성원 간 합의하여 종종 와이파이/인터넷 끄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3. 건강합니다.

2. 공유지 소개

- a. 이름:
- b.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300-103번지
- c. 집구조 : 방 세개, 화장실 두개인 집이 1층과 2층 두 채
- d. 계약구분 : 월세임대
- e. 명의자: 달프(1층),자기(2층)

3. 빈고 공동체 개요

- a. 공동체통장이름 : 소담 -> 새 집(이름 미정)으로 이동 예정
- b. 공동체책임자(3인 이상) : 자기, 마리아, 달프, 사, 니름
- c. 공동체활동가 : 달프
- d. 재정담당자 : 니름
- e. 공동체구성원 : 니름, 자기, 사, 달프, 이산, 인정, 마리아
- f. 참여방법
 - i. 빈고 뉴스레터를 통해 집 현황을 항상 알립니다.
 - ii. 빈고 공동체회의를 환영하며 장소를 냅니다.
 - iii. 빈고의 공동체기금, 펙권조약 등을 이용하며 선순환에 기여합니다.
 - iv. 입주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빈고를 소개하고 안내합니다.

4. 빈고 공동체 활동 계획

- a. 출자활동
 - i. 빈고 조합원 가입 및 개인 출자활동 (개인 및 공동체 출자금 약 900만빈)

- ii. 공동체구성원 개인출자계획
- iii. 공동체통장
 - 1. 잉여금의 1/3을 빈고 공동체 통장에 출자합니다.
 - 2. 빈고에 가입하지 않은 장투의 분담금 중 만원을 공동체 통장에 출자합니다.
- iv. 기타 출자활동
 - 1. 빈고 조합원인 장기 투숙객 개인에게 월 1만빈씩 출자합니다.

b. 이용활동

- i. 공동체 활동 이용
- ii. 공동체 공간 이용
 - 1. 수입현황 :
 - 2. 월 평균 지출 :
 - 3. 저축현황 : 빈집 잉여금 약 800만빈
 - 4. 이용의 필요성 :
 - 5. 이용목표 : 계약 끝나는 2020년까지 집을 무사히 유지하고, 가능하면 계약을 연장합니다.
 - 6. 이용활동 개요
 - a. 이용기간: 2018.10.20~ 2020.10.20
 - b. 이용금: 2,000만원 (1층) / 2,000만원 (2층)
 - c. 이용수입예상: 7% 기준
 - d. 이용분담금: 월 약 24만빈

iii. 공동체회원이용

5. 연대활동

- a. 지역활동
 - i. 지역의 다른 단체, 공동체와 연대합니다.
- b. 공동체기금
 - i. 이사, 재난 등의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신청합니다.
- c. 지구분담금
 - i. 구성원 개인 활동 중 연대가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게끔 안내하겠습니다.
- d. 건강보험계
 - i. 구성원과 손님에게 소개하고 참여와 연대를 독려합니다.
- e. 펭귄조약
 - i. 환영
 - ii. 손님이 곧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서울 나들이 온 빈고 조합원들을 초대합니다.

6. 운영활동

- a. 공동체 운영을 통해 만나게 된 주변 이웃 및 단체들에게 빈고에 대해서 홍보합니다.
- b. 회의, 모임, 교육, 총회에 참여합니다.

7. 다른 빈고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 a. 은평에 갑니다. 10년동안 있던 해방촌을 떠난다니... 해방촌 아닌 빈집과 빈집 아닌 해방촌이 어떨지 아직 모르겠어요. (부산에 잘자리가 있었지만 서울에는 해방촌에만 있었으니까요.) 큰 탈 없이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과거의 잔해

전월세 임대차계약 사항

명의자:

계약기간: 2018.10. ~ 2020.10.

보증금:

월세:

보증금 현황:

차입금(차입자, 차입조건):

빈고 공동체이용 신청 사항

계약책임자(3인 이상):

출자금 총액: (9/8 기준 4인 63만빈)

계약기간: 2018.10~2020.10

이용금:

신청이용수입: 25만 원

재정담당자 이름:

적정 장기투숙자 수: 최소 장투 6명. 적정인원은 장투 8명과 단투들로 생각함.

집 소개

자기: 칭찬을 많이 하고, 자기 계발을 하는 집,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좋은 집단 속에 있을 때 개인은 변화할 수 있다.

사: 서로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마리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케이시: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사: 각자 자기 할 일 해도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1. 휴식과 회복의 집입니다.
2. 구산역과 응암역을 잇는 대로변 근처에 위치한 집입니다.
3. 동네가 평지이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4. 살림의원과 만화책이 많은 도서관, 그리고 불광 혁신파크 등에 일이 있을 때 방문하기 용이합니다.
5. 응암역 쪽으로 가면 불광천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6. 방 3 개에 화장실 2 개, 약 30 평, 베란다 2 개

7.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인 빈집입니다
8. 관계 속에서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9. 식물을 많이 심고 좋은 에너지를 재/생산한다.

집 운영 계획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이란:

자기: (밖에서) 편한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것

케이시: 괜히 돈 걱정, 시간 걱정 안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단순히 무동작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것.

사: 여유가 있는 것.-여유가 있으려면?

마리아: 긴장을 푸는 것.

사: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한 다음에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유로운 시간이란 여유를 위한 시간 (온전히 여유를 위해 쓸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네. 차마시는 것도 엄청 그런데 특화된 거죠)

케이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서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공/시간, (귀에 이어폰 끼고 편의점에서 캔음료 사가지고 그걸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휴식이거든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자기: 이런 여유를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 집에서 어떠한 것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집중.

와이파이 없는 시간 만들기

전자기기 없는 시간

명상할 수 있는 시간

음악감상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방, 특정 시간에 어떤 방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치유프로그램/동아리프로그램) 만들어서 어떤 방에서 어떤 시간.

같이 --하는 날 만들기 (공연 보러가기, 전시 보러가기, 산책하기)

살림 프로그램 참여

혁신파크에서 집 물건 팔기

혁신파크 청년참 동아리 등록

동사무소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동네 근처에서 열리는 여러가지 활동에 다같이 참여하기 - 지역 사회와 교류?

투숙객들이 좋아하는 동네 공간을 찾고 공유한다 (feat. 도서관, 불광천)

식물을 많이 심자.

루꼴라 묘목을 구하면 좋겠다.

공간여유/정리

휴식과 회복과 여유를 위해서는 공간에도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정리가 필요함. 어수선, 난잡하면 정신 사납다...

공간에 대한 네이밍라벨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닉네임 자기 말고)물건에 대한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산되어 있어서 난잡한 건 아닌 거 같아요.

물건이 나와 있어서.

여러가지가 총체적으로 안되고 있다.

깨끗한 상태의 집을 찍어서 사진으로 뽑고 집에 붙여놓는다. 그 사진의 상태를 기본으로 한다. 이 사진을 뽑을 때 가사노동과 집 사용법에 대한 설명서도 같이 뽑는다.

가사노동과 집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을 찾자

자치

1. 매주 1회 집 회의를 가져서 한주나눔, 안건 및 건의, 회계상황 공유를 진행하며 구성원들이 집을 꾸려갑니다.
2. 집은 과거에 지낸 사람과 현재 지내는 사람, 미래에 지낼 사람이 이룬 공간입니다. 머무는 동안 주인처럼 참여하고, 손님처럼 내어주는 마음을 가집시다.
3. 집에 머무는 사람과 새로 올 사람을 위해 집을 깨끗이 유지하고 정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4.
5. 살림노동을 인정하고 그 부담을 개인이 가지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하여 모두가 최대한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항상 안정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살림살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든다.

6. 집을 꾸리는 시스템을 매뉴얼화하고 집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손님=주인도 빠르게 살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유

1. 집이 어떤 곳인지, 집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공유합니다.
2. 집 회의 내용과 회계 상황을 빈집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합니다.
3. 회계 장부는 구글드라이브로 빈고와 집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여 항상 모두가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4. 빈집이 가지는 공유지로서의 가치를 집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최대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든다.
5. 낮 시간에는 방문을 최대한 열어두어 집이 단절된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현관문에 비밀번호로 된 도어락을 설치하여 소담을 이용하고 싶은 이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한다.
7.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것들(ex 식료품 사용, 잠자리, 여러가지 물건들)은 공유하여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8. 정기적으로 스트레칭, 불광천 산책, 차 마시기, 동물권모임,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등 여러 성향의 모임을 열어 집 공간을 지역 주민과 빈마을에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9. 비건 음식을 공유한다.
10. 잉여금의 일부를 빈고에 선물한다.
11. 집에 사는 사람들의 빈고 가입을 장려하고 의무 출자금액을 설정하여 새로운 공유지를 만드는 것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한다.
12. 방이 가득 차있는 상황에서는 거실에서 잘 수 있도록 하여 거실공간을 항상 비워놓는다.
13. 언제나 열린 상태면 힘들고 지칠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이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친 사람은 함께 사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배려를 얻고자 노력하며 구성원들은 귀 기울여 듣는다.
14. 교환일기나 방명록처럼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과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고양이 일지 만들어 기록하고 빈집 웹사이트 등에 공유합니다.
16. 거실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임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게 합니다.
17. 비건 음식을 공유합니다.

환대

1. 집에서의 생활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하고 새 구성원을 맞았을 때 활용하여 집의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2. 손님이자 주인인 새로운 사람이 집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방문했을 때에도 맞이 할 수 있도록 환영의 글을 거실에 배치한다.
3.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책을 하며 마을을 안내하는 식의,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노력과 품을 들인다.
4. 누구든 월 1회 하루 단투에 대하여 단투비를 대신해 선물이나 활동(유익하거나, 또는 즐겁거나) 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서로를 따듯이 맞는다.

평등

1.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2. 나이와 성별, 학벌, 외모,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연령, 인종, 민족, 장애, 질병, 비인간 동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지양합니다.
3. 누군가 혐오를 담은 표현을 한다면 지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4. 평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공유하는 집입니다.

나는 이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래 적어주세요】

아침저녁으로 서로를 다독여주는 말 한마디씩 하기

이용활동계획서 양식이 바뀌어서 정리하고 해당 양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https://bingobank.org/utilize/92>

->다음주 집회의 때 양식수정에 대해 이야기하자.